

종교인들을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정 윤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결사적투쟁을 진행하는 조건하에서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는것은 가장 해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청우당이나 민주당이나, 근로인민당이나 인민공화당이나, 자산계급이나 종교를 믿는자나 그 누구를 불문하고 미제와 그 주구를 반대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하며 그들을 이끌고나아가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14권 148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교인들을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전쟁승리를 위한 애국애민의 길에서 참다운 삶을 빛내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종교인들을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그들속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미제를 증오하는 사상을 심어주도록 하신것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교인들속에서 제일 약한 고리는 미제를 증오하는 사상이 부족한 것이였다. 이것은 종교인들로 하여금 미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없게 할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반역의 길로 떨어지게 하는 사상적요인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교인들의 사상정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어 그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 반미교양을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8월 31일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종교정당, 단체의 인사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종교인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 반미교양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교인들속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을 없애자면 미국놈들이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날 《하느님》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입버릇처럼 외우던 《인도주의》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조선인민을 전쟁의 참화속에 밀어넣었다는데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게 하며 지어는 저들이 선도하여 지어놓은 레배당에까지 폭탄을 퍼붓고있다는 사실자료를 가지고 교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교정당, 단체들에서는 전승기도, 전승레배, 좌담회 등을 자주 조직하여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진행하는 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똑똑히 알려주어 그들이 전쟁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1(1952)년 11월 그리스도교련맹의 한 인사를 친히 전화로 찾으시어 북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남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공동주최로 미제의 만행을 폭로규탄하는 항의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시고 대회의 조직과 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이 대회가 미제의 파렴치한 만행을 세계면전에서 발가놓고 아직도 숭미사상에 물젖어있는 종교인들을 각성시키는 중요한 계

기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여기에는 종교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살인만행을 종교인들자신이 폭로하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있었다.

하기에 미제의 만행을 폭로규탄하는 북남조선그리스도교도들의 항의대회에서는 대회 참가자전원의 련명으로 호소문이 채택되고 전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종교인들의 가슴속에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정의의 불을 지펴줄수 있었으며 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미제를 증오하는 사상을 가지고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었다.

종교인들을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통일전선의 기치밑에 종교인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하나로 튼튼히 묶어세워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조직동원하도록 하신것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당원,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은 주민구성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있었으며 그들이 전쟁승리에 주는 영향도 소홀히 할수 없었다.

그러나 조국해방전쟁시기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종교정당, 단체들과 그에 망라된 종교인들에 대한 그릇된 리해를 가지고 그들과의 사업을 홀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태의 엄중성을 꿰뚫어보시고 주체39(1950)년 11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18차 확대상무위원회와 주체40(1951)년 3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10차회의를 비롯한 여러 계기에 전시 통일전선사업에서 나타난 결함과 편향들을 극복하고 조국전선을 더욱 강화하여 종교인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결사적인 투쟁을 진행하는 조건에서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는것은 가장 해로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당, 종교단체의 당원들과 맹원들에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꾸준히 해설해주며 그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우리 당원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0(1951)년 12월 전선형편으로 바뀐 속에서도 그리스도교련맹의 한 성원을 부르시여 북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교인들속에서 나타나고있던 그릇된 문제들을 바로잡아주시었다.

당시 북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사업에서와 교인들속에서 일련의 문제가 제기되고있었다.

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안에 있던 보수분자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벌려놓고있었다. 그들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그 준엄한 시기에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한데로 총집중할 대신 교회를 확장하려는 기도밑에 복잡한 틈을 리용하여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엄혹한 시기에 나라와 인민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교회와 조직의 복구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정세에서 우리는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 후방을 더욱 공고히 하며 조국전선을 계속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하겠는데 일부 그리스도교련맹의 인사들과

반동교직자들속에서 이른바 조선그리스도교혁신운동이라는것을 내놓고 그를 적극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물론 그리스도교련맹이 종교인들의 집단이기때문에 그리스도교혁신운동 같은것을 벌릴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모든것을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파괴된 조직과 교회의 복구를 떠들고다니는 그리스도교교직자들과 교인들의 주장의 부당성을 명백한 논리를 가지고 해설해주시였다.

사실 그때까지 적지 않은 그리스도교교인들은 미제야수들의 치떨리는 살인만행을 직접 체험하고 《하느님》의 《사도》라고 자처하는 미국놈들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이며 사람의 가족을 쓴 승냥이라는것을 똑바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형편에서 종교를 부활시키려고 하는것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행동이며 나아가서는 리적행위로 되였다.

그러나 함경북도그리스도교련맹의 인사들은 교직자들과 교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레배를 보러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고있었다. 그들은 레배를 보고 《하느님》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반동이 되지 않으며 성실한 공민이 될수 있다고 설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종교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리스도교를 계속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놈들이 파괴한 교회를 복구할 필요도 없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복구할 자금이 있으면 전선원호금으로 바치는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것이 공화국국민으로서의 애국적인 소행으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1(1952)년 4월 아직도 북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안의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들과의 사업은 저들만이 할수 있기때문에 민주당은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쟁승리와는 관련이 없는 그리스도교련맹 지방조직들과 교회 복구에 신경을 쓰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론 그리스도교련맹이 자기아래 조직들과 교회를 복구할수 있겠지만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시며 모든것을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업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시 민주당에는 그리스도교목사들과 장로들을 비롯하여 그리스도교교인들이 중요한 세력을 이루고있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웅당 그리스도교련맹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우리당의 통일전선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련맹의 인사들과 종교인들은 민주당이 마치도 련맹사업과 신앙생활에 간섭하는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당의 통일전선운동에 저해를 주고있었다.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애국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워 전쟁의 승리를 앞당겨야 할 준엄한 시기에 민주당에 대한 그리스도교련맹의 이러한 태도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리스도교련맹은 지금처럼 고립적으로 사업할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쟁승리를 위한 정부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 교회에 량심적인 교직자들을 배치하여 그들이 교단을 통하여 《하느님》을 믿어도 미국의 《하느님》을 믿을것이 아니라 조선의 《하느님》을 믿으라고

하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야수적만행과 죄악을 폭로하는 반미선전과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종교정당, 단체의 인사들과 교인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 행동지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종교정당, 단체들과 종교인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섰다. 북조선민주당,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을 비롯한 우당, 종교단체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각 정당들앞에 제시하신 과업을 적극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자기 당원들과 맹원들을 조직동원하였다.

우당, 종교단체들에 의하여 상공업자결기대회, 그리스도교교직자결기대회, 천도교열성자대회 등이 진행되었으며 그리스도교교회들에서는 전승기원례배를, 불교사찰들에서는 특별전승기원법회를 조직하여 우당원, 종교인들이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였다.

우당원, 종교인들은 후방에서 로동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전시증산투쟁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적들의 야만적폭격에 의하여 파괴된 도로, 교량시설의 복구와 군수물자의 수송, 인민군후방가족원호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자기 대렬안에 잠입한 간첩, 파괴암해분자, 도피분자 등 온갖 반동분자들과 불순이색분자들을 적발숙청하며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고 공고화하는 사업에도 자각적으로 참가하였다.

우당, 종교단체들은 통일전선의 기치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복종시켰으며 애국적헌신성과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전시증산과 전선지원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청년교인들은 자기들에게 진정한 삶과 행복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고마운 조국을 위하여 용약 전선으로 탄원하여나갔으며 녀성교인들속에서는 군기기금헌납운동에 적극 참가하는 애국적소행들이 널리 발현되였다.

조국전선아래에 망라된 공화국남반부의 종교정당들과 사회단체들도 해방지구들에서 자기들의 조직을 복구하고 각기 자기 당원들과 맹원들을 전선원호와 복구건설을 위한 사업에 조직동원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의 종교인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자기의 보람찬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세계만방에 떨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것이다.